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3 columns: 06:00, 07:00, 08:00. Lists morning and afternoon programs like '건강한 아침', '한국기행', '성공! 인생 후반전'.

Table with 3 column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EBS programs such as '한국의 아침', '수학(하)', '포스', '23:00 시사토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4일(음 6월 17일 辛卯). Include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드라마의 거장’ 김중학 지다

‘신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 경찰 조사 받아

23일 숨진 채 발견된 김중학(62) PD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거목이었다.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MBC에 PD로 입사한 김 PD는 1981년 ‘수사반장’으로 연출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다산 정약용’(1983), ‘동토의 왕국’(1984), ‘인간의 문’(1984), ‘영웅시대’(1985), ‘남한산성’(1986), ‘인간시장’(1988) 등을 거쳐 화려한 경력을 쌓아온 그는 1992년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로 스타 PD 반열에 올랐다. 송지나 작가와 호흡을 맞춘 이 작품은 최고 시청률 70%를 넘기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근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이 드라마는 높은 완성도와 주연 최재성, 채시라, 박상원의 열연으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1995년 MBC를 떠나 제작사 제이콥을 차린 그는 그해 SBS 드라마 ‘모래시계’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송지나 작가와 다시 한번 땀 뻘뻘 ‘모래시계’는 ‘귀가시계’로 불릴 만큼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당시 신생 방송사였던 SBS가 자리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고 시청률은 64.7%에 달했다. 현대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인물을 연기한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은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고, 신에 이장재도 여심을 사로잡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1998년 내놓은 SBS ‘백아 3.98’은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김 PD는 1999년 김중학프로덕션을 설립하며 다시금 드라

마 제작에 박차를 가했다. 2002년 드라마 ‘대망’에 이어 올 준비 끝에 2007년 판타지 드라마 ‘태왕사신기’를 내놓았다. MBC에서 방송된 ‘태왕사신기’는 당시로서는 550억원이 넘는, 엄청난 제작비에 한류 스타 배용준을 앞세워 방송 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하며 이목들을 끌었다. 그러나 ‘태왕사신기’ 이후 5년 만에 선보인 SBS드라마 ‘신의’는 이민호와 김희선 두 톱스타를 앞세웠지만 시청률은 10%대 초반에 그쳤다. 판타지 멜로 드라마를 표방한 이 작품은 시간여행을 소재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의 방향성을 상실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 PD가 2009년부터 공들인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컸다. ‘신의’는 제작비와 캐스팅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 3D로 제작하려던 계획도 수정해야 했다. 작품은 화제가 되긴 했지만 김중학 PD가 카리스마 있는 연출가라는 평가는 공들였다. 김중학 PD는 작품을 깨는 연출력과 뛰어난 현장 장악력으로 드라마를 이끌었다.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 ‘태왕사신기’에서 보여준, 선급은 연출은 여느 연출자에게 보기 힘든 것이었다. 연출력을 인정받으며 백성예술대상 연출상을 네 차례나 받았고, 한국방송대상 연출상과 작품상, PD연합회대상 작품상 등도 수



63년동안 그리워 한 내 딸 ‘미요코’

‘KBS 파노라마’ 김운태씨 가족 찾기 동행

지난 6월 16일 일본 전역에 재일학도의용군 출신 김운태(86)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같은 달 초 KBS 1TV ‘KBS 파노라마’가 방송한 ‘아버지의 나라, 재일동포 청년들의 선택’ 편을 통해 김 씨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일본 아사히신문이 취재한 것. 한국전쟁에 참전한 김 씨는 전쟁이 끝나고도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당시 일본에는 만삭의 아내와 세 살 배기 딸 미요코가 있었다. 김 씨의 소원은 ‘아빠

라고 부르는 미요코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다시 듣는 것이다. ‘KBS 파노라마’는 25일 밤 10시 가족 찾기에 나선 김 씨의 여정을 소개한다. 1950년 9월 김 씨는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고, 12월 가족이 있는 일본 니가타 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1951년 3월 그는 다시 참전을 자원으로 한국으로 떠났다. 일본의 가족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로 일

TV 하이라이트

Three columns of TV highlights: 1. '입방정계의 4인방 토크 배틀' featuring a group of comedians. 2. '광장시장의 24시간 매력속로' showing a busy market scene. 3. '극한직업(EBS TV 밤 10시45분)은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원 목기'...' describing a pottery-making program.